

# 광주서 자전거 사고 가장 많은 곳은 '전대사거리'

도로교통공단 전국 213곳 선정  
북구·광산구 2곳씩 광주 4곳 지정  
5년 사망자 30명...27명 60대 이상  
전용도로 등 부실한 인프라 원인



자전거 운전자들이 29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대사거리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대사거리 일대가 광주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2022년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2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고다발지역은 2022년 한 해 동안 반경 100m 내 자전거 사고(가해 또는 피해)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다. 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건수 3건 이상이라도 포함됐다.

광주에서는 북구·광산구에서 각각 두 곳씩 총 네 곳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북구 신안동 전대사거리로, 한 해 동안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사고 건수 4건), 광산구 쌍암동 삼성디지털프라자앞(4건), 송정동 명동아파트 앞(4건) 등이 사고다발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에서는 사고다발지역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광주지역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60~70대 노인층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8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 4명, 2022년 10명 등 5년간 30명이었으며, 이 중 27명(90%)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2018년 95명, 2019년 87명, 2020년 99명, 2021년 85명,

2022년 67명 등 총 433명이며, 이 중 231명(53.3%)이 60대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광주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분석한다.

사고다발지역이 모두 구도심에 있으며 도로폭이 좁고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 점도 지적됐다.

문세훈(사)자전거사망자친구연합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구도심일수록 노인 등 자전거 운전자는 많은데 자전거도로가 중간중간 끊겨 있거나 지장물이 많은 등 정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또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자전거도로를 눈에 띄는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하는 등 작은 차이도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자전거 운전자들이 나서서 안전의무를 지키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사고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실제로 광주의 사고다발지역 네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17건의 사고 중 12건으로 70.5%를 차지했다.

이밖에는 불법유턴 차량에 의한 사고 1건, 신호위반 사고 1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1건, 우회전 차량 진로방해 1건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문 본부장은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스마트폰을 보고 주행하거나 헬멧을 안 쓰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다"며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 아동부터 실버세대까지 꾸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높이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큰 사거리나 도심에서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량 운전자가 빠르게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자전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으로, 헬멧 착용, 야간 조명 등 안전장치 부착 등 작은 습관들을 외면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검찰 고위직 인사 앞두고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의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임박하자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8기)가 사의를 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검찰1과장,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김 검사장의 사의에 앞서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이수권(54·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달 초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로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인사검증이 진행된 점에서 선배기수들의 사의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재 고검장급으로는 분류되는 간부 중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공석이다.

검사장급에서는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와 광주지검장 자리를 포함해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춘천지검장, 제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해양치유 인력 양성 해수부 양성기관 지정 고시

조선대학교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됐다.

29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대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조선대는 3년 동안 해양치유 자원관리 방법,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운영·관리하는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센터장 김춘성)의예과(교수)에서는 10월부터 해양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있다.

해양치유는 국가전문자격 지정 예정인 해양치유사(가칭)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꼽힌다.

해양치유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해조류와 머드 등을 이용한 해양치유 산업이 활성화 돼 있다.

조선대는 이번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조선대와 완도군이 협력한 결실로 해석하고 있다.

김춘성 센터장은 "17년간 한국수산벤처대학을 운영해 온 노하우로 누구나 해양치유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가을밤에 만나는 반딧불이

광주 북구 내달 9일~26일

무등산 생태체험 프로그램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 9일부터 26일까지 무등산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을 운영한다.

행사는 가족 생태체험과 초등학생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가을밤에 만나는 반딧불이'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무등길 쉼터와 평촌도에공방, 평무뜰에서 진행된다.

총 4회(9월 9·10·16·17일)에 걸쳐 진행되는 가족 생태체험에서는 퓨전국악·통기타 공

연과 나만의 반딧불이 만들기, 반딧불이 탐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태체험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일동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6차례 열린다.

반딧불이 모니터링 및 환경교육과 숲 놀이 등 활동과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족 생태체험은 29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광주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생태체험은 23일부터 29일까지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단위로 모집하며 재학생 300여명이 대상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중·고생 전원에 스마트 기기 지급

노트북·태블릿PC 8만5887대

광주시교육청이 중·고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31일부터 다음 달까지 165개 중·고교에 스마트기기 8만5887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학생에게 노트북이, 고교생은 태블릿PC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659억원이다. 스마트 기기는 대여형식으로 지급되며 졸업 때 반납해야 한다.

기기가 고장나면 교육청이 80%를 지원하지만, 분실하면 학생이 100%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스마트 기기에 유해 동영상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공약사항인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꼽히는 SW·AI 등 컴퓨터 기반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배려다.

정부는 초등학교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교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를 통해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늘릴 방침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하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 고자 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